현불논단

우리 삶이 아름다우려면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산과 들, 꽃이 제 색깔 드러내며 장엄
자신만의 색깔 향기 보여야 결실 맺어
사람도 자기 존재감 알아주면 힘이 나

〈화엄경〉에는 동명동호 부처님 나투어
모두가 위신력으로 법혜보살 가피 내려

새로운 시작 알리는 봄, 주변에 관심을
각 분야 신입에게도 따뜻한 응원 당부

산마다 들마다 꽃이 제 색깔을 드러내어 형형색색을 나툰다. 만물이 소생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색깔 드러내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봄날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봄날의 꽃들은 아니 어느 시절의 꽃들이든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일까. 사실은 색깔뿐만이 아니다. 꽃마다 다른 향기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식물학자가 아니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자신만의 색깔과 향기가 한껏 드러나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더욱 힘이 나서 자신의 일에 매진한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일곱 장소를 옮겨 가면서 9번의 법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새로운 법회가 시작될 때, 그 법회에서 설법을 담당하는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 보살이 삼매에 들어가는 순간, 시방세계로부터 삼매에 들어가는 보살과 같은 이름을 가진 부처님들이 한꺼번에 몸을 나타내어서 가피를 한다.

'십주품'의 예를 들면 설법을 담당하는 법혜보살이 삼매에 들어가고, 그 삼매의 순간에 일천 부처님 세계의 티끌과 같은 수만큼의 많은 세계에 계신 법혜부처님이 한꺼번에 법혜보살 앞에 몸을 나타내어 한목소리로 가피를 한다. 그 가피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한량없는 방편이라는 이름의 삼매에 들었구나. 선남자여, 시방의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티끌과 같은 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가 위신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시니, 이것은 비로자나 여래의 본원력(本願力)과 위신력(威神力)과 그대가 닦은 선근의 힘 때문에 이 삼매에 들어가서 그대로 하여금 설법하게 하시는 것이로다."

이른바 동명동호의 부처님이 나타나 가피하시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비로자나여래의 본원력과 보살의 선근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본원에 충실하면서도, 중생이 각각이다 보니 중생을 구제하는 불보살의 구체적인 방법론 역시 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별원이다. 삼매에 들어가는 법혜보살과 가피하는 법혜부처님들의 이름이 같은 것은 이 별원이 같은 까닭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서원을 가진 부처님들이 나타나 힘을 더해주는 곧 가피하는 장면이다. 아무리 먼 세계에 있더라도 서원을 같이하는 존재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와 힘을 더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그 원에 동참하는 신입자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끌어간다.

봄날에도, 어느 계절에도 처음 피는 꽃은 자기 색깔과 향기를 한껏 드러낸다. 대학문에 막 들어선 젊은이들이 그렇다. 학생 시절의 청년들은 누구나 그렇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향기와 색깔은 사라지고 돈 많이 주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동일한 색깔의 목적지만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는 가혹함이다. 저마다의 꿈을 키울 여지를 주지 않고, 성적과 취업이라는 동일한 규칙의 경쟁사회로 내몰아버린다. 그 과정에서 저마다 달랐던 꽃들이 동일한 색깔과 향기를 지니게 된다.

저마다 다르면서, 함께 어우러져 있기에 아름답게 여겨졌던 꽃들이 같은 색깔 같은 향기를 가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꽃이어서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불교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 주변에 대한 사소한 관심이 간절해지는 순간이다. 봄꽃을 알아주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알아주려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과정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저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에 보면 '쓸모없는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휘어진 나무는 휘어진 대로 가치가 있고, 생채기가 있는 나무는 그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궁전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고, 웅장한 집의 대들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서 산을 지킨다는 것은 쓰임이 없어 생명을 보전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쓰임이 없다고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서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겁니다.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서 한여름의 땀을 식힐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나무의 이런 역할은 잊어버리고 결과만을 따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 · 최주현

어떤 일을 할 때 '꼭 성공해야 한다'는 결과를 향해 가면 자신이 힘이 듭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다보면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 산정상이 목표라면 참으로 재미없을 겁니다. 산을 오르면서 새소리도 듣고, 계곡물에 손도 씻어보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만나고, 낮게 핀 들꽃도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가 더 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면서 그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성공과 결과에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잘되면 좋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적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틀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이름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사람만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는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마애불 입불 불사에 수희 동참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기 위한 간절한 염원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3월 28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윤달 3.7일 특별기도'를 시작하며 입재식을 봉행했다.

'특별기도'는 오는 4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릴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출범식 전, 온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원만한 불사를 위해 간절한 염원을 담는 기도정진이다. 입재식 후 21일간 매일 오전 11시 진행되며 동국대 WISE캠퍼스 선림원 학감 선우 스님과 환풍 스님이 기도를 집전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거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를 내놓았다.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진 부처님을 제자리에 모셔 과거천년과 미래천년을 다시 잇게 하기 위해서다. 이에 스님은 취임 후 첫 원력으로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 마애불 바로모시기에 박차를 가했다.

그 공덕으로 비단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운이 융창하고 민족이 단합하며 부처님 광명이 날로 빛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다. 때문에 석굴암 부처님과 동시대에 조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K-문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안팎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다. 종단 중흥과 국민행복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불사가 아름답게 회향되길 바란다. 1300년 만에 우리 앞에 나투신 부처님을 바로세우는 기도에 많은 불자와 국민이 수희 동참하길 기대한다.

태고종 중흥 이끌 새 리더 '기대'

4월 18일,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앞두고 원장 당선을 위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다. 기호 1번 상진 스님과 기호 2번 성오 스님이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이 공개되면서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다져놓은 안정 국면을 기반으로 종단의 위상을 격상시킬 신임 총무원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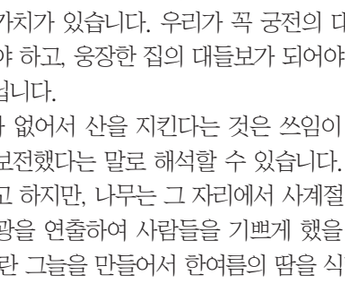
양주 청련사에 선거캠프를 연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교육사업 확대와 승려노후복지 실현, 재정 운영 자립화 등 종단 운영 6대 기조를 밝히면서 "강력하고, 단단하고, 활발한 태고종은 얼마나 발품을 팔고, 잠을 덜 자느냐에 달렸다"면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예고했다.

안성 꽃절 성은사에 선거캠프를 연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종헌 종법 개정과 종단기구 개편, 교육체계 현대화 등 주요 종책 공약을 네가지로 압축해 발표했다. 성오 스님은 "연륜과 경험을 살려 태고종을 장자종단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종도화합"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태고종은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총무원장들이 비리와 횡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정하는 의전 서열에서도 점차 밀려났다. 종단 화합과 중흥을 구현할 적임자가 절실한 이유다.

리더가 교체된다는 의미는 곧 그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태고종에 쌓여온 곪은 상처를 걷어내면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신임 총무원장의 탄생으로 반복된 혼란으로 인한 상처를 딛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재도약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